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진각적 영성
인문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충현

나의 형이 되신 예로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권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 3:3)

발행처: 대한예수교 신학대학교 출판부 (서울 151-747) ☎ 02-552-3831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5월의 이카사야 향기보다 진한 주님의 기도"

복음 안에서 녹아져 하나된 청지기훈련

지난 주간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모인 청지기훈련은 지난 5월 1일의 제육대회의 열기와 열매를 신령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연 3일 동안 특히 각 교구장을 위하한 장로님들, 목회자들, 교사들, 특히 열매적 연합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찬양대원들, 단 마음으로 참여한 모든 교구인원과 성도들을 또한 말씀에 사로잡혀 말할 수 없는 열심과 정성으로 말씀을 선포하신 위임복사 등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가 된 시간이었다.



한때는 주의 욕심을 슬퍼했고, 부활의 경이로움을 맛보았던 사도 요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 사신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떠올랐을 때, 그분의 음성은 얼마나 진한 사랑의 향기가 되어 영혼 깊은 곳에 머물렀을까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사랑하는 그분의 기도는 광복과 환난의 계단을 지나 천국 문 안으로 들어와 때까지, 그의 영원한 믿음의 무릎을 세움의 바람과 그로부터 자식들의 감시 하리라고 대지로부터 내날의 기도를 조금도 변함없고, 한번도 멈추지 않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셔서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 그런 까닭에 2천년의 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부디복사 사당스런 기도가 되어, 5월 이카사야 내음보다 진한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골며금에 감싸주었다.

요한 13-17장,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기도

요한복음 13에서 17까지는 유월절과 함께 십자가로 가셔야 할 것을 아신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기도가 나온다. 13에서는 서로 사랑 할 것을 명령했다. 주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가득한 미움과 시기, 질투를 알고 계신다. 14에서는 마음에 불인인 간악한 자들을 위해 주께 주신다. 15에서는 이같이 한 사람의 자비로움과 불만과 공포에 살아난다는 것을 아셨다. 15장에 이르러 열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과 함께 생명을 약속하신다. 기뻐하며 외치는 열매인 사랑을 맛보는 것이 우리 아니었는가 그리고 16에서는 팔복을 담고 있는 것이니 살수까지 말하고 강하게 말했다. 주님은 그 팔복의 구원을 불신자들에게서 찾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인들, 전통주의, 율법에 매인 자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그리고 17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니 시작하셨다.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 17:16)
그리스도인이라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다.

예수께서는 나그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다.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17:16. 그 기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온전한 사랑으로 세상에 개입시킨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는 근로 하나님께의 존재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신 신성을 소유하셨으며 2:6, 성령으로 감화되어 계신다. 12:2, 그리고 그의 생애는 조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셔서 철저하게 세상에 구별되었기 때문이다(히 4:15).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

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기도하셨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경험적실천적인 측면이다.

우선 신학적인 측면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즉 creation(born again)으로 새로운 피조물(new creature)이 되었으며(골 5:17),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sinless life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banality)이 되었다(골 2:13)는 두 가지 측면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러나 2:13은 생명을 행을 한다. 해서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외형적-그리스도인(external-christian)과 본질적-그리스도인(internal-christian)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전자는(前者)는 거듭나고 있는 종교인으로 새 육에 속하여 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후자(後者)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다. 삶에서 예수와 같은 자를 의미한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삶에서 거룩한 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것은 거룩한 삶도 없다.

경험적인 측면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신의 비환상과 실의 몸과 실의 가지가 변화되어 살리는 것의 의미이다. 고통 중에서 더욱 더 믿음으로 변함없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는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에 걸음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지기의 목적과 성취와 자기실현이 신의 목적이라 그런 세상에 속한 자이다. 또한 세상을 잠시 머무는 곳이며 하나님께로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요, 세상에 머물기 바라며 물질을 축적하고 소

유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이다.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요 17:18)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자이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는 기도를 하셨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세상에 보내어지자 하는 자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은 한때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망명한 바다를 떠도는 난파선과 같다.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구별하신 이유가 바로 세상으로 보내라고 하시기 때문이다(골 2:19).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18절).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어지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30년 동안 기다리셨다. 우리가 알듯이 그의 생애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주님은 영혼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셨으며, 자기 목숨을 주시가지지 영혼을 구원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의 제자들에게서 임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라는 것이다. 그 사명을 위해 예수께서는 두 가지의 기도를 하셨다. 첫 번째는 '보호'를 요청하셨다. '내가 비움은 것은 저희를 세상에 보내시라'를 위임이 나오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15절). 기억하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참사로 되고 진실 수 없다는 사실을 다른 한가지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17절).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그 진리로 정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해주고, 그 수치를 피하오로부터 빛이 하나님의 무기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진리로 거룩함을 얻은 자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그 소명은 감제치기 않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그 오 이상으로까지 친신도 출몰하는 특권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종교적인 철학, 타사실명을 이루기 위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목표를 바꾸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생애를 되돌아보는 자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목적이 동일하다. 한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하 신자처럼, 그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 기억하라 두 기억하라. 우리가 세상에 보내어지는 것은 예수와 동일화(identification)라는 것이란 사실을 본질적 진리의 자녀이었던 우리가 가진 한 가지 것일지,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우리의 목적도 본질적 하나님으로 보내는 것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군이 되었노라"(엡 3:7). 금주 수요일(5월23일)에는 총신교회 제33대 장로가 새취직이 된다. 이들은 지난 해(2000년10월29일) 2월4주 예배주, 공동의회를 통해 장로로 선출되었는데, 그동안 성경공부와 여러 가지 훈련을 거쳐서 임직하게 되었다. 총신의 또 성도들은 장로로 장립하는 이들이 오직 복음

"예수님의 기쁨"(눅 10:21,22)

그리스도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진리를 알, 겸손한 심경, 그리고 아버지의 주권을 기뻐하시나.

'실심 임이 기뻐 돌이와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라 보고하셨다(눅 10:17).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주 강한 기쁨을 표현하는 '기뻐하시'(rejoiced)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기도 했다. 주께서는 진실로 무엇을 기뻐하셨나?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계사(계명)를 깨닫는 것을 기뻐하셨다. 제자들은 귀신에 항복하고 떠나 갔고나 기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이 떠나 갔다는 기쁨이 아니라, 인간들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을 기뻐하신 것이라(20:22).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의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몰아낸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거나, 주님께서 주신 능력임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행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되 하나님의 의도와 자신의 공로가 높이 들려지기를 염두에 두지 않을 때 기뻐하시라. 우리가 행하는 사역의 어떠한 결과도 하나님 앞으로 아무런 보람도 되지 않는다. 구원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은(恩)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과 의(義)만 드러내면 된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진정한 회심과 사치의 은을 맛보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겸손한 도구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셨다. 주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다. 따라서 주님도 무한한 인성을 택하셨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인간의 의를 바꾸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셨다. 가르치라는 자보다 배우려고 하는 자를 기뻐하셨나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늘 가르치려고 한다. 그래서 선생이 되기를 좋아하지만, 학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이들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을 가르치려 하는 이들은 은혜의 물줄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라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재배를 선포하시며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계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니 어린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나타내시니 아버지께의 특별한 행을 기뻐하셨나이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셨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으며 언제나 그 사랑을 아셨다. 그러므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써 그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의 통제를 받아들이고, 부끄러움은 인도성을 의뢰하고, 그를 통해 무한한 경배를 드리라.

제33대 장로장립 임직예배

금주 수요일(5월23일) 2부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을 위해 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임직자는 다음과 같다.

임직자 명단

- 조종현(12교구, 청년2부 부장)
- 배준식(15교구, 영아부 부장)
- 김영철(12교구, 사무관 관리과장)
- 이성호(12교구, 중동3부 부장)
- 박진호(12교구, 예배위원)

Way of the Cross

(Matthew 16:21-27)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Jesus went to Caesarea Philippi to spend some quiet time with His disciples. Specifically, this time was meant to change their lives. Jesus had an important message to share with them. He asked them,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v. 15)? Peter rightly confessed that He wa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v. 16). Jesus confessed that upon this divine revelation and profession of faith He would build His church (v. 18). He also confessed that His life and our life would be by the way of the cross (vs. 21-27). The way of the cross is God's way of salvation. It is a concept many Christians today don't like to hear about, but must, because it is the way of eternal life.

Jesus showed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and suffer many things from the elders and chief priests and scribes, and be killed, and be raised up on the third day" (v. 21). He had to take the cross in order to fulfill God's will. This came as a big surprise to all His disciples. They were expecting the kingdom of Christ to be established here on earth now. Why? Their experience with the large crowds that gathered to Him to listen to His words made them think now was the time (13:2). Their

experience of His miraculous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walking on water, and healing of the sick made them think this was the time (14:1-36). Moreover, His rebuke and authority against the scribes, Pharisees, and leaders made them think the kingdom of Christ was soon to be secured (15:1-39). But Jesus taught them the way of the cross. Indeed, His disciples were surprised at this teaching because they didn't expect this way. They expected Him to be King here and now. Actually, when we look at Jesus' life from the manger to the cross we realize that His mission, His objective all along, was the cross. That was His life. He took all our sins to the cross. He came to this earth for that purpose.

What kind of reaction did Jesus' education about the cross receive?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saying, "God forbid it, Lor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v. 22). From the bottom of his heart, Peter initially rejected it. In this world there are lots of Christians who want to get saved in different ways other than the cross. Some think that religious rituals will clean away their sin, and others tend to think that good moral living will buy their way into

heaven. The cross reveals our condition of sin. It shows the seriousness of our sins. It shows that only the blood of Jesus can wash our sins away, "and from Jesus Christ, the faithful witness, the firstborn of the dead, and the ruler of the kings of the earth. To Him who loves us and released us from our sins by His blood" (Rv. 1:5). Amen! Jesus suffered and died under the hands of religious people. Religious and moral acts cannot save human beings, only Jesus Christ can save us.

Jesus calls us to come to the cros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v. 24). The way of the cross is submission. Do you remember Jesus' prayer in the Garden of Gethsemane? He prayed, "Father, if You are willing, remove this cup from Me;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Lk. 22:42). Although Jesus existed in the form of God, He did not regard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bu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Phil. 2:6-8). Amen! Jesus gave

absolute sacrifice and absolute service. He said, "For the Son of Man is going to come in the glory of His Father with His angels, and will then repay every man according to his deeds" (v. 27). In other words, if you follow Jesus in total faith He will recompense you. He wants you to confess, believe, and deny yourself to Him. From there you will gain resurrection from the dead. From there is your hope! Jesus lived His life here on earth totally in this way in faith.

Do you want to follow Jesus? Think about what He says, "For whoever wish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For what will it profit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and forfeits his soul? Or what will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vs. 25-26)? The way of the cross is for resurrection, eternal life. Jesus responded to Peter's rejection by saying,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 stumbling block to Me; for you are not setting your mind on God's interests, but man's" (v. 23). My dear friends, set your mind on God's way. This way, the way of the cross, will lead you to glory. Amen! 🙏



김성관 목사

십자가의 길

(마 16:21-27)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믿음의 고백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잠시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려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점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베드로가 즉시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6절). 그러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신적인 계시와 믿음의 고백 위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18절). 또한 자신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27절).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치 않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임” 말씀하셨습니다 (21절).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당장 이 땅에 건설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게 된 것일입니다 (13:2).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위를 걷는 능력,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비로소 때가 왔다고 여겼습니다 (14:1-36). 한 길을 더 나아가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질책과 권위야말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오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15:1-39).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참으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지금 이 곳에서 왕이 되시길 기대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말기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 이르는 예수의 생애를 바라볼 때,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목적은 언제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전가시키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죄 씻음을 위한 유일한 길

십자가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으로 보였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옹호로 데리고 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2절). 베드로는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기 원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

예식이 그들의 죄를 씻을 것이라고 믿으며, 또 다른 이들은 도덕적 선행이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밝히 드러냅니다. 즉 우리 죄의 심각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라” (계 1:5). 아멘! 예수께서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손에 의뢰고 난반으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선행들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해 십자가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24절). 십자가의 길은 철저한 순종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갓새마리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눅 22:42). 비록 예수께서는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취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

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6-8). 아멘! 예수께서는 완전한 희생제사와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다시 말씀 드리자면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면,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보상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으며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얻을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리라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25-26절). 십자가의 길은 부활과 영생을 위한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거부에 대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3절). 사랑하는 중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길 위에 두십시오. 이 길,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을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

외선부, 중동 A국팀



외선부의 A국팀은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실제로 A국 형제들이 교회에 출석을 한 것은 그 이전부터였다. 본 교회에 출석하던 우즈베크 형제의 인도로 1999년 10월부터 A국의 두 형제가 처음 출석하였고, 그 후로 꾸준히 인원이 늘어 작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A국팀이 구성되었다. 현재는 20-30명 정도의 인원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

자신들을 무슬림이라고 주장 없이 말하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첫 주에는 이 두 형제가 세례를 받는 경사가 있었다. 그들이 교회를 출석한 지 9개월만의 일이었다. 이들이 회심을 하게 된 동기는 어렵고 힘든 한국에서의 삶 가운데서 외선부의 교사들이 베푼 진심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위로 받았고, 무엇보다 교사들의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정직함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아 회심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회심이 본국에 알려지게 되어 이들은 지금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 A국의 종교법에 위반이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귀국을 하게 될 경우 이

들은 자동적으로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며 다시는 이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히 믿는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리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의 고백대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

대다수의 A국 형제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슬람 신앙을 고수하고 있지만 앞서 두 형제들과 같이 회심을 하고자 하는 형제들이 있다. 또한 회심하지는 아니라도 기독교에 깊은 관심을 가진 형제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복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얻어 구원을 얻는 수가 더하여 지도록 기도하자. 이슬람권의 선교는 그 개종률이 낮은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어느 선교사는 무슬림 선교 40년의 사역 기간 중에 단 한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운전사였다. 그러나 선교사가 죽은 후 그는 다시 무슬림이 되었다는 실화다. 이는 이슬람이라는 문화권에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이제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한국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이 곳까지 이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이 무슬림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나온지 전곡수 없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영순 (집사, 4교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21:15-17)라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처럼 "예,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고는 놀라 눈을 번쩍 뜨니 새벽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거침없이 대답한 나에게 마음에 서들러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나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따뜻한 봄바람이 느껴지는 4월, 총전도의 날로 정하고 기도로 준비한 4월,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4교구 전도회원들은 교회출발점으로 논현동을 중심으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수요일은 전도 나가는 날로 정해놓고 정해진 선동역을 향해 나가고 있지만 이 날은 교구 식구들과 함께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향해 전도지를 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바쁘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단데요." 이 말을 듣고 잠시 나를 뚫어 쳐다보던 청년은 받아 든 전도지를 유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분명히 예수님은 이 청년을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이 다음에 교회에 꼭 나오세요." 약속을 하듯이 이 말을 하였고 바쁘게 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세계 선교지 정보-1

회교 근본주의 수출지

시락과 산으로 둘러싸인 이란은 1979년 신정회교국가로 출범하였다.



이란(Iran)

이란은 중동에서 초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중흥에 힘을 모으고 있고



이란 국민들은 회교 혁명으로 유혈 참사를 당하여 많은 고통을 겪었다.



회교혁명 이후 많은 이란인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스파이들이 기독교 집안 내부로 침투하고 있고 교회집회 장지, 건물 폐쇄 등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 한다.



현재 약 300만명의 이란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역 에 살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터키와 경쟁하고 있다.



때마다 다지오는 탄압과 그로 인한 공포, 회교관 감옥, 회교 교육을 이기지 못해 이민을 가고 있다.



시아파 회교 국가로서 여기서 이슬람하는 자는 박해의 대상이다.



1988년 이라크국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 팔라키가 점점 증가되어



많은 이란인들이 회교에 한계를 느끼고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다.



지금 한국에 나와있는 이란인들은 자유롭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이곳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슬람 용어를 알아봅시다!

이슬람 : 601년 아라비아에서 마호메트가 창시한 종교로 유일신 알라를 신앙하고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다. 회교(回敎)는 이슬람을 뜻하는 말이다.

모슬렘 :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수니파 : 이슬람교의 정통파로서 전 이슬람교도의 약 90%를 차지함. 순나(마호메트의 언행)를 수호하고 4대 칼리프까지를 마호메트의 정통적 후계자로 간주한다.

시아파 : 이슬람교의 2대분파의 하나로 시 마호메트의 종형제이며 사위인 알리를 그 정통적 후계자로 본다. 신비주의적 색채가 가미된 시아파는 과격단체의 유포를 낳았다.

선교위원회 전제 기도모임

대상 :

1. 2001 여름단기선교 참가자 전원(필수 참석)
2. LMTC 수강생 및 스캇 전원
3. 외선부 교사 전원
4. 선교위원회 실행위원 전원
5. 그 동안 단기선교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

일시 : 24일(목) 18:00

장소 : 맨홀

기도제목

1.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2. 2001 여름단기선교를 통해 복음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도록
3. 본교의 평신도 단기선교팀이 복음으로 잘 준비된 일꾼이 되도록(LMTC)
4. 외국인 근로자 사역의 활성화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엄기 문 (청년1부 회장)

청년1부 지체들의 대부분은 직장인들이다.

매일 정시에 출근하지만 정시에 퇴근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퇴근 후에도 회사일로 인해 자신들의 여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뿐 아니라 회사 안에서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문제들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 양로인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물론 사류에 관통해 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지도 모른다. 직장 안에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직위가 올라가면 갈수록 더욱 그러하다.

청년1부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루고 교회에 나오는지 잘 알고 있다. 일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한 주일의 유일한 소망인 지체들도 있다. 주중에 모임이라도 갖게 되면 이들은 몇 번의 대가를 치루고 나와야 한다. 그런다고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직위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상사에게 더 눈총을 받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에 나오는 청년1부 지체들을 보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에게 말씀의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담백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다.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살아 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 고통을 채워 줄

수 있는 소중한 근원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시간들을 낙으로 아는 사람들...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청년1부의 여름 수련회는 짧다.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기에 그 대가들을 믿음으로 치루어 내고 수련회에 참여한다. 이런 훈련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일까? 이들의 삶에는 그리 크진 않지만 구체적인 실재들이 차곡차곡 쌓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여름 수련회가 6월 5일-6일, 1박 2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믿음, 그리고 삶이라는 주제로 청년들 삶의 실질적인 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이 수련회에 기대를 갖고 대가를 치루면서 참여하기를 바란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다르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이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 깊은 말씀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스승의 주일에 보내는 감사편지

사랑하는 선생님께

세로난 연초록 일들이 하나 하나 많은 햇살에 부딪히 기쁨으로 쏟아져 내리는 눈부신 오월입니다.

유난히 감시한 분들이 많이 떠오르는 계절, 그래서 더욱 따사로운 기쁨으로 마음 가득히 차 오르는 이 때에, 늘 마음은 온 선생님께 쓰던 편지를 종이 위에 옮겨 봅니다.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이곳 천호교회 청년1부에 처음 왔던 7년전 쯤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선생님을 뵈는 늘 그 자리에 계셨고, 저의 청년들 한 명한 명 영혼을 마음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또한 섬김의 본으로 직접 보여주셨던 선생님, 저희들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이 지켜봐 주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주셨던 선생님, 참처럼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돌같은 저희들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감수하셨던 선생님, 어쩌다가 편지라도 한 번 써 드리면 꼭 답장을 정성스레 보내주시곤 하셔서 저를 무척이나 기쁘게 하였던 선생님.

한 동안은 그런 선생님께서 정말 감사해서 자다가도 깨서 감사하곤 하였습니다. 한 해 한 해 그렇게 쏘아냈던 사랑과 정성만큼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한 현재의 저희 모습을 생각해보면 선생님께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훗날 기쁨으로 단을 거두실 소망으로, 그리고 한결 같은 모습으로...

선생님과 함께한 청년1부 DTS온 전리반 과정을 우여곡절 끝에 15개월만에 다 마치게 하니 무언가 하나를 다 마쳤다는 성취감보다는 그 배운 바를 더욱 구체화시켜서 실천해 가야한다는 부담감이 앞섭니다. 이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아요.

"후배들이 나를 믿고 한 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정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을 키워주시는 것에 평생을 두고 헌신하시는 선생님,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아가는데 힘쓰라는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아름답고 싱그러운 계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조한글(청년1부 교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기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처음 사랑방에 온지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훌쩍은데도 그 많은 시간들이 저는 왜이리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척 망설였습니다. 자제때마다 웃어주고, 또 기뻐해주었다. ○○이가 웃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그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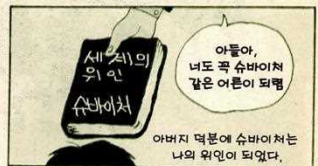
소에서 저는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곤합니다.

○○이에게 제가 '○○아'라고 부르면 ○○이는 하던 모든 것을 제쳐두고 제게로 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자마자 그가 간 것처럼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당신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 반성하게 됩니다. ○○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당신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지 못하는 것 같아 무척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다른 때보다도 요즘은 당신을 더 많이 생각하고 싶고 또한 사랑하길 원합니다.

무지하고 무지한 제게 이렇게 ○○이의 귀한 사랑과 ○○이를 사랑하고 계신 당신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신 일!

만평

글·그림 : 김병헌



그런 부모님의 권면이 고요되어 가는 날로르게 꿈을 키웠고 마침내 성인이 되는 날 부모님께 그 뜻을 말씀드렸다.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니, 어리숙한 생각 말아라. 연설을 생각해야지"



다윗을 가르치고 바울을 가르칠 때 진정한 자녀와 삶이 그러하길 바라십시오.



조한글(청년1부 교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기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처음 사랑방에 온지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훌쩍은데도 그 많은 시간들이 저는 왜이리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척 망설였습니다. 자제때마다 웃어주고, 또 기뻐해주었다. ○○이가 웃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그 미

소에서 저는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곤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허락하신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삶을 산다는 이유로 자주 당신께 문안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기억하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언제나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이제 더 많은 미소를 ○○이와 함께 지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 평을 놓아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다,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2001년 5월에
당신의 딸 정성미(청년1부) 드림.

구역예배탐방 - 3교구 연합구역예배

하나님 앞에 큰 무리로 모여



지난 11일 금요일 아침, 그들 전 베다니홀에 불이 밝혀지고, 피아노로 연주되는 찬송가 곡조가 두문가를 부르는 듯 흐르고 있었다.

여성들이 두세 사람씩 모여들었다. 10시가 되자, 베다니홀은 여성들로도 가득 메워졌다. 목사님의 인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한 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고백하며 이틀 큰 무리의 예배는 시작되었다.

매달 한 번 이곳에서 드려지는 3교구 연합구역예배.

본문 말씀은 '큰 무리' (렘31:1~9). 복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시온으로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직접적으로 선언하였다.

복이스라엘의 왕 예로보암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빼앗길까 두려워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경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대신 하게 하였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다.

그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앗수르의 포로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큰 무리를 이루고 그의 앞에 나아오게 하시기를 약속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백성을 큰 무리로 모으시되 소경, 절뚝발이, 임태한 여인과 같은 연약한 자들, 곧 죄로 인해 연약하여져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여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오는 자들을 부르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정령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고 계시며 그들로 큰 무리를 이루려하시는 것이다. 교구목사님의 말씀 전파 내내 여성들의 적극적 응답이 터져나왔고 어머니들의 이러한 열정에 사뭇 놀랐다.

진정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아 항상 그의 앞에 나아오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구하는 기도로 3교구 연합구역예배는 마쳐졌다. 세심한 교구소식 나눔이 있는 후 서로 교제를 나누며 베다니홀을 나서는 3교구 여성들의 얼굴은 유난히 밝게 빛나 보였다. (연합원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서상희' 자매를 소개합니다

부모님, 언니와 자매 네 식구입니다.

음악 감상이 취미이며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와 교회에 다닌 적이 있는데, 지금은 엄마와 새가족부 같은 반에 나오게 되어서 기쁘다고 합니다.

church교회는 봉사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서 자신도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인 것을 새가족부 집회를 통해 알게 되었고, 새가족 소개 시간이 즐겁고 하고 떨리고 씩스럼없고 했지만 기억에 남아 좋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움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승애' 자매를 소개합니다

전주가 고향이고 지금은 대학원에서 여성학 석사과정을 받고 있다가 이슬에 자매는 종교 시절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며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서울로 대학교 진학을 하면서 교회에 정착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적응하지 못해 영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다가 공생전 집사님의 인도로 church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새가족부 집회에 참여하면서 이제는 교회에 정착하여 학문을 성취하는 일과 생활 속에서의 힘든 일이 정렬될 것 같은 위안을 얻게 되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다고 합니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오늘의 진솔

십자가 군병들아 (390절)

인도의 성자 쎄다 싱그가 복장 지방에 전도하려 할 때의 일이다. 높은 지방을 지나갈 때 너무 추워서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쎄다 싱그는 그를 업고 가자고 하니, 같이 가던 제자는 우리도 살까 말까하는 이렇게 추운 곳에서 어찌 얼어서 다 죽어 가는 사람을 업고 가겠느냐고 하며 뿌리치고 갔다. 그러나 쎄다 싱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며 길가에 얼어서 다 죽어 가는 사람을 보고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며 그를 업고 높은 지대를 올라갔다. 너무 힘에 겨워 그의 몸은 얼어 확확 울라 그의 체온으로 등에 업힌 사람이 완전히 녹아서 살아났다. 한참 가다보니 또 하나가 쓰러져 있어 자세히 보니 업고 가기를 뿌리쳤던 제자가 그 주를 지대를 온갖 고난과 그로 동행하고 난 것이다. 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기로 한 자는 자신도 살고 엄했던 사람도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외쳤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났겠는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10:39).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감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아멘.

출전: 찬송가해설(김경선지음/도서출판여운사)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와 함께 탄환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를 위하여 기꺼이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때를 나누는 일에는 많은 중증들이 모이지만 때를 존중하는 마시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산으로 숨으시거나 위로를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곧장 불평을 말하거나 낙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같이 있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특별한 만족이나 위안을 위하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왕이나나 마음의 고통가운데서도 최선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면 때와 마찬가지로 그 분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 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관과 자기 사랑의 이기성이 전혀 없어야 마땅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형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주님께 항상 위로 받기만을 바라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은 돈에 끌려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들은 항상 자기들의 유익과 소욕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보하는 실상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필 2:21)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한 번도 우리에게 외적인 평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내적 평화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줍니다. 당신의 지아가 포기되고 부인되는 고통과 고통을 통하여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참된 평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디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그것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 십자가가 당신의 짐을 재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당신이 소망하는 목적지로 당신을 인도해 줄 것이며 그곳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면 그것은 당신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되어 당신은 더욱더 고통을 겪어지게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십자가를 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십자가를 내면과 버리면 불평없이 또 하나의 십자가를 얻게 될 것이며 아마도 그것은 더욱더 무거운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고난의 길을 걸어 보다 편한 다른 길을 찾으려 한다면 속임수에 속아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애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으며 어느 곳이나 십자가의 흔적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부 안에서 변화됨의 즐거움

김 행 자 (사랑부 교사)

내가 사랑부의 교사로 장애인 지체들을 섬길 줄은 생각도 못 했었다. 어느 장로님의 권유로 열려와 두루마니 앞선 가운데 사랑부 교사로 봉사를 하게 되었다. 그때 나의 자녀들은 반대했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에 대한 편견이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내가 봉사를 시작하니 자녀들도 호기심에서 사랑부를 가뭇거리며 관심있게 찾아오곤 했다. 때로는 교회학교 찬양대 연습이 끝나면 간식을 갖고 사랑부로 달려와 내가 맡은 친구에게 정겹게 간식을 주고 달려가곤 했었다. 남편 또한 내가 사랑부 교사로 봉사를 하는 것을 대견하게 여기기도 했다.

여자 아이가 없고 남자 아이만 둘을 키우는 우리 가정에 어떤 것이 사랄인지 재학원이 되면서 썰렁했던 분위기에 변화가 왔다. 또한 사랑부에 처음 와서 내가 사랑을 주기보다는 예쁜이 친구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나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사춘기로 너무 힘든 일을 겪게 되었다. 그런데 사랑부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인내로 사랑의 참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녀들의 사춘기도 그리 어렵지 않게 잘 넘기게 되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지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사랑부로 보내심을 참으로 감사한다. 그 후로 몸이 많이 불편한 친구들을 영혼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신체 장애인의 편견이 잘못됨을 알았고 우리는 육신의 장애는 아니지만 생각이 장애임을 알았다. 그런 세월 속에 어떤 6년이 지나고 사랑부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볼 때 무척 두꺼비처럼 주일 사랑부로 도착하면 내 영혼에 참 평안과 성령 안의 기쁨이 있다. 교사로서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몫인 것 같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마음에 상처가 많지만 사랑부 안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 성화되어가기를 바란다. 또한 늘 기도로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선택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한다.



찬양이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이 강 미 (예바다부 여선교회, 동아인)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기자가 저에게 글을 부탁했는데, 조금 부끄스러워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부족함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내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글을 썼습니다.

지난 1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한껏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일본단 기동사신교였습니다. 처음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여호수아 1:9)"라고 하셨기에 담대한 힘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일본으로 떠날 정강이 아입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에 목사님 · 장로님 · 권사님 · 선교단원들 가슴에 깊이 뿌리내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화목한 모습들을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본 본국인들을 만났을 때 불쌍한 영혼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웠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박관신님께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주님의 명령을 받아 많은 동아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지난번 찬송가 부르기 대회 때 저는 진실로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겠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수화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표현만 하는 것을 보니 정말 아쉽고 속상했습니다. 제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면서 성도들 앞에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싶었지만 제 마음대로 잘 안 되어 그냥 수화 찬양을 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성가치회자가 되고 싶은데 박자가 잘 안 맞아(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하지만 하나님께 용감 반을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찬양이 정말 좋고 행복합니다. 물론 힘든 일도 많지만 찬양을 할 때의 행복함만큼 따듯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역을 계속하는 어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진리의 생

전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전도서를 읽을 때는 먼저 자주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헛되다'는 많은 비유방식을 타트리고 난 후의 상태와 같은 공허함과 무의함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지혜(2:15,16), 인간의 수고(2:19-21), 인간의 목적(2:26), 시기(4:4), 욕심(4:8), 명성(4:16), 부(5:10), 탐심(6:9), 부절없는 일(7:6), 인정받음(8:10,14) 등 10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라는 말은 하늘 아래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상황을 대표하며, '수고'라는 단어는 힘들을 다하는 순간까지 애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홍'과 관계된 허망한 존재를 의미하고 있고, '약'이란 단어는 해 아래에서 헛되게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하는데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혜'는 철학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하나님'은 해 아래 있는 죄인과 관계를 맺으시는 계시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헛되다'는 의미를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금욕주의적인 태도나, 세례를 부정하여 여기거나 수련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금욕주의(Stoicism)가 아니라,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principle)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만일 그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믿는 자는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을 잊은 채 산 것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됨'이라는 주제를 하나님 없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도서의 문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 세 가지 없고, 모든 것이 헛되므로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결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지 않으며, 쫓기고 영원한 실재인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창피도 내면 곤한 날이 이르기를 믿지, 나는 아무 일도 없고 할 게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전도서의 결론은(12: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명확하게 정리된답니다(마 6:33).

(김종화 목사·순관국 지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면치니



복음 들고 산을 넘는자들

언뜻 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불렀다.

최근에, 내가 알고 지내던 한 가정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또 그들에 앞서 이미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쳤다.

그들이 세상의 부귀, 명예, 행복을 다 버리고 아니, 자신의 소유를 모두 내어 버리고 선교지로 떠날 수 있었던 신념은 무엇일까? 짐작하건대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즉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한 감동과 그들의 마음을 흔들여 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에 대한 소명감이 그들의 헌신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마음을 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깊이 생각해 보면, 갖가지 생각이 있지만 틀림없이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비전과 사랑과 열정을 가슴에 품고 선교지로 떠났을 것이다.

그들이 선교지로 떠나면서, 보내는 선교사들에게 소중한 일을 부탁했다. 말하자면, 앞으로 선교지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줄때나 후방에 남은 동역자들은 구체적인 실제적인 선교의 정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주기를 요청했다.

선교는 동역의 역사다. 그렇다면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과 일상동행이 되어 복된 소식을 알리는 일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는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날이 이르리라(사 52:7).

(김성화 기자)

교 회 소 식

알 림

1. 구제헌금 다음 주일(27일) 1~5부 예배 시 드립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 임

1. 장로 할로세백기교회
일시: 21일(월) 새벽기도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일(27일) 회합
일시: 22일(화) 새벽기도 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찬양위원회의 월례회
일시: 다음주일(27일) 찬양예배 후
장소: 찬양위원회실
4. 남대진도부 월례회
일시: 다음주일(27일) 15:15
장소: 찬반홀
5. 봉사위원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봉사위원회실
6. 권사3지회의 월례회
일시: 23일(수) 수요일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남대진도회

1. 바울 2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배다나홀 111호
2. 바울 4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복거론 지하2층 교구모임 장소
3. 바울 5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교육관 203호(신교관정부실)
4. 바울 7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예배관양대실
5. 장로 8지회의 월례회 및 노년집회
일시: 26일(토) 14:00
장소: 구두론 이사산막, 어린이대공원분문
6. 바울 10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복거론 지하층

7. 바울 12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영아부실
8. 바울 13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310호
9. 바울 16지회의 월례회 및 노년집회
일시: 26일(토) 15:00
장소: 중원교회 교육관 앞
10. 베드로 7지회의 월례회
일시: 24일(목) 19:30
장소: 갈릴릴방
11. 베드로 9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갈릴릴방
12. 베드로 10지회의 월례회
일시: 22일(화) 19:30
장소: 중원감리회
13. 베드로 12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유아부실
14. 베드로 16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41호
15. 장로 5지회의 월례회
일시: 26일(토) 19:00
장소: 신왕수 집사대
16. 요한 8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12:00
장소: 신교관 영아부실
17. 요한 9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갈릴릴방
18. 요한 13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3부예배 후
장소: 관반홀
19. 한나 13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314호
20. 장로 15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반나홀
21. 예스도 1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제2교육관 2층
22. 예스도 2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206호
23. 예스도 5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 장소: 교육관 201호
24. 예스도 7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아관홀
25. 예스도 8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구모임 장소
26. 예스도 10지회의 월례회
일시: 27일(일) 15:00
장소: 복거론 지하층
27. 예스도 12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관반홀
28. 예스도 13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탁아부실
29. 예스도 15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배다나홀
30. 루디아 1지회의 월례회
일시: 21일(월) 10:00
장소: 창경산 나루터
31. 루디아 2지회의 월례회
일시: 21일(월) 10:00
장소: 동문 강미실(창경산)
32. 루디아 6지회의 월례회
일시: 22일(화) 11:30
장소: 영아부실
33. 루디아 8지회의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교구모임 장소
34. 루디아 13지회의 월례회
일시: 22일(화) 09:50
장소: 분당일(송원도관)
35. 마리아 1지회의 월례회
일시: 22일(화) 10:00
장소: 교도교방(강미실)성도대, 한미관(010)83-25463-3426
36. 마리아 9지회의 월례회
일시: 22일(화) 11:00
장소: 심교수 집사대(010-574-9120)
37. 마리아 14지회의 월례회
일시: 21일(월) 10:00
장소: 유인영 집사대 (여의도동 상봉로 1-906 02-782-9983)
38. 마리아 16지회의 월례회
일시: 22일(화) 10:30
장소: 모악산

발 세

1. 안태금 은회집사
(최경준 집사의 모친, 오영희 집사의 장모, 8교구 현대1구역) / 8월 번째, 10 일 장례
2. 민준식 타교장로
(이효상 집사의 장인, 민경애 집사의 부친, 2교구 신사1구역) / 12월 번째, 15일 장례
3. 전정식 성도
(최송자 집사의 남편, 15교구 봉천10 구역) / 14일 번째, 16일 장례
4. 장기옥 은회집사
(이용호 집사의 모친, 전옥순 집사의 시모, 15교구 봉천4구역) / 15일 번째, 17일 장례

결 혼

1. 김윤성 전도사(김한봉 장로, 신영미 집사의 아들, 1교구와 최근의 양(최송자 집사, 박경애 집사의 딸, 1교구) / 22일(화) 13:00 갈릴릴방
2. 홍기일 군(홍현영 성도, 김재옥 성도의 아들, 5교구와) 이은미 양(이성영 성, 윤명애 씨의 딸) / 22일(화) 11:30 향교리관(참살)
3. 김준수 군(김동현 성도, 백영희 성도의 아들, 5교구와) 김지연 양(백영희 씨의 딸) / 24일(목) 18:00 양지동 서울 교육문화회관 2층(가야금동)

주 소 번 경

1. 장철한 안수집사, 김경숙 집사 유순자 아모운 418번지 동부주택트레빌(103-1007)
☎ 793-1007
- 중등3부 "없는 양 찾기"
일시: 오늘 09:00~11:00
장소: 교육관 507호

충헌중보의창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동지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복사남을 언제나 복음의 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동료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김창민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전리에서 불꽃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가게 하소서.

④ 충헌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오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⑥ 충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충헌복지관 개관 6주년 기념 세미나

"부모 사후(死後) 우리 아이 장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부제: 장애 자녀 평생계획의 실제)

1. 일 시: 5월24일(목) 18:30~21:00
2. 장 소: 충헌교회 제2교육관 4층
3. 문 의: 충헌복지관 ☎564-4885
4. 강 사: 이명구 관장(충헌복지관)
5. 참가비: 5,000원(식사 및 교재 제공)
6. 어린 자녀를 위한 탁아방이 운영됩니다.

남성도 구역장 영성훈련 휴강 공고

일직 예배 관례로 22일(수) 남성도 구역장 영성훈련이 휴강된다.

새·가·족·을·환·영·하·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19	이미선	1	루디아		430	유희숙	12	청년1부	신원대(8)
420	조계순	1	루디아		431	양승호	19	청년2부	배의성(8)
421	김성준	8	청년1부	김성애(19)	432	노길	1	청년2부	이주은(15)
422	박정민	8	청년1부	김성애(19)	433	이인희	1	청년2부	이준승(15)
423	인태진	6	청년2부		434	김정관	19	대학부	최준호(8)
424	변승룡	12	청년1부		435	반석	19	대학부	반연숙(1)
425	최정민	15	대학부	홍수철(5)	436	이주은	19	대학부	장혜영(15)
426	김동후	19	청년1부	조신옥(9)	437	최지영	19	청년1부	
427	노윤석	2	청년2부	유복심(2)	438	소은정	19	청년1부	한재순(2)
428	최현경	2	청년2부	유복심(2)	439	서경원	19	청년1부	이혜경(1)
429	김성수	5	소당부	박영옥(11)	440	김명화	1	마리아	

※ 충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 오시기 바랍니다.

성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차재동
김병태 사목전 최성식 이준경 박민기
여성기 류병희 노경숙 임재훈 이홍철
김영훈 여국근 김성철 송길환 이수준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나광명 정진도
신교사 정은희 권영일 최은아 권오섭
이로라 이로라 이로라 이로라
이로라 이로라 이로라 이로라
- 협신목사 하오생(이로라) 강기영(이로라)
■ 전신감독 강인규
■ 강사 강인규
■ 예전지도자
정현희 김장자 송창자 신동자 윤인숙
김은호 현영준 김민석 홍순애 이우주
김갑자 안태순 최희성 백영자 김정연
조옥자 강덕철 김경신 장재구
■ 고정전도사 박양태

매월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전 1:00	본당
V	오전 3:00	본당
VI	오전 5:00	본당
주요 예배	1:00 11:00 1:00 7:30	본당
교구 회	오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